

2016년 11월 21일,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, 문경미 조사.  
고정아(여, 1939년생, 제주시 해안동)

**[조사자]** 남선빈 뭐꽈?

**[제보자]** 남선빈 아들 일곱 성제 난 사는디. 그 쪽은각시 사람이 어디 아무디 그 사람을 보내랜 허난 옛날은 걸어만 뎅겼지. 게난 못 신 디 간 남선비 큰각시가 등땡이 밀어안내쿠덴 허멍 허연 거려밀련 죽여불언. 죽여부니까 이제 큰각신 죽어부난 나가 큰각시 일곱 성제 난 어멍이노랜 허연.

**[조사자]** 거짓말로예.

**[제보자]** 거짓말로 허연. 어멍이노랜 허연. 남선비가 그 하르방은 몰란.

“아야 배 아프다. 배 아프다. 아야 배야 돌돌 아야 배야 돌돌.”

헌 건 뭣이냐 허민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으민 나가 그 배를 좋으肯 허난. 아들 일곱 성제 경 허난 그 하르방은 칼을 골없이난 주끗데 할망이 그땐 성냥이 엉어낫주기.

게난 불 담으레 왓단, 하르방은

“이건 뭣허젠 골없우과?”

허난 우리 얘기어멍 막 배 아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肯 허난 칼 을 ?노랜 허난. 한 배에 둘썩 시 번만 나민 일곱 성제주기. 경 행 이젠 허난. 그 하르방은 폭 고정 들언. 이제 그 칼을 골없이난 그 불 담으레 온 사름은 그 불을 안 담고 그냥 나간. 그 아들들 촛안. 하나신더례

“형들이영 아시들이영 몬딱 촛양 돌아나 불라.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어사 좋肯 허난 아방 칼 골없저.”

허난 쪽은아신지 성인지 하나 딱 놔 된 요섯 성젠행 이젠 돌아나 부나네. 사람은 말 들어네.

“무시거 햅우과?”

“저 어멍 아판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으민 좋겐 허여네 골았저.” 허나네  
“아버지 손으로 허젠 허문 뭐허고 나가 강 헤영 오건 아바지가 맥입서.”  
경허난 남선비엔 헌 사람은 그 아덜을 주엇주기. 주난. 산에 강 산토세기 일곱  
개 애 내엉 왓주기.

**[조사자]** 무신거 일곱 개?

**[제보자]** 산토세기 일곱 개. 일곱 개 애 내엉와네

“이거 애 내엉 왓이메 아바지 허영, 어머니 낫거든 허고 아니 낫거든 나 아바  
지 손으로 허영 죽영 애 내엉 맥입서.”

“아이고 고맙다.”

헹 허나네 그 아들은 ?만히 곱양 본 거라. 곱양 보난 사람 걸 먹어져게. 톡톡  
불랑 위알더레 묻어부나네 그게 그냥 먹는 척만 헨. 허나네. 그 아덜은 말째 문  
을 활딱 울안

“어머니 영 오래 누민 내도 나고 나가 방 치우쿠다. 나가 방 치우쿠다.”

“늙은이 늙는 방 침지 안 헤도 웃다웃다.” 허난.

확 헤여네 몬딱 시난 아덜 일곱 성제 살안 나오나네 살앗구나. 나완 화들짝 나  
와네. 죽엇인지 살앗인지 몰라. 심방 말미에 나오는 거라. 거 뜻도구리여.

**[조사자]** 끝말이 어떻 된지는 모르고?

**[제보자]** 그거 잊어불엉 몰라. 할망이 심겨사 불어삿인지 도망사 갓인지 거 몰르주게.

**[조사자]** 그 할망은 무슨 디 모시는 신이 웃일 거 아니?

**[제보자]** 그건 경허난 뜻도구리여. 통시에 이런 디 칙간 영 앉안 똥 오줌 늙는 팡. 팡이여  
경 허연. 동티 그걸로 나타나는 거라. 그 할망 죽언.

- 핵심어 : 남선비, 애, 산토세기, 아덜, 할망, 일곱 성제, 족은각시, 큰각시